

/지역 단신/

보성 국제결혼 여성 '한글교실 수료'

보성군은 지난 15일 전주교 보성성당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반 학생 및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한글교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한글 기초학습 ▲한국문화 ▲현장학습 등의 테마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보성군은 내년에는 보성읍과 벌교 두곳에서 한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나주 '우수특산물' 42종 지원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향토자원을 개발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에 대해 '나주시 우수 특산물'로 지정하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시는 (주)가보농산 등 4개 업체에 디자인 개발비 등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주)영산 흥어의 흥어 회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나주 우수 특산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주)가보농산 김희성 대표는 "나주시의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은 나후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광산, 어린이 집-공원 결연

광산구가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예산 절감을 위해 '어린이 집과 어린이 공원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최근 우산동 빗고을 어린이 집 등 12개소가 인근 어린이 공원과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로 어린이집은 어린이 공원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돼 연간 529만원의 관리운영비가 절감되게 됐다.

반면 구는 어린이 공원이 생태학습 및 체육공간, 문화활동의 장 등 어린이 집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광산구는 사업비 8억여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관내 54개 어린이 공원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지는 해에 액운을... 뜨는 해에 희망을...”

목포·여수 등 해넘이·해맞이 행사 다채 선상 일출·울트라 마라톤·불꽃 쇼 열려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7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남 각 지자체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목포시는 오는 31일 오후 5시부터 유달산 낙조대와 평화광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열고 1만2천여명 여객선 씨월드 고속훼리에 관광객 2천500여명을 태워 해남군 화원면 앞 바다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는 해맞이 행사를 마련한다.

여수시는 31일 오후 7시30분 돌산읍 임포마을에서 '새 빛, 새 희망, 천년의 해오름'이라는 주제로 '여수 항일암 일출제'를 개최한다.

이날 일출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

치 및 2007 여수시 발전 기원' 염원의 불꽃 화를 비롯 '항일암 제야의 종 타종' 등 송년 행사와 신년 축하 불꽃 쇼, 일출 제례 등 다양한 새해행사가 이어진다.

해남군은 송지면 갈두리 땅길 일원에서 '땅길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연다. 일몰 행사는 해넘이제, 강강술래, 달집 태우기 등이 열리며, 일출행사는 해맞이제, 때때 띄우기, 선상 해맞이 등이 펼쳐진다.

장흥군도 관산면 신동리 정남진, 대덕면 천관산 정상 등 6개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갖고 관광객들에게 떡국 및 차를 나눠줄 계획이다.

강진군은 31일 저녁 전국에서 모인 200여

■전남 해넘이·해맞이 행사

지역	장소	문의전화(061)
목포	유달산-평화광장	270-8440
여수	돌산읍 임포 마을	690-2036
순천	별량면 회포 선착장	749-3235
해남	송지면 갈두리 땅길	530-5229
강진	보은산-주작산 정상	430-3231
고흥	영남면 남월 해수욕장	830-5225
장흥	관산면 신동리 등 6곳	860-0224
진도	침찰산 정상	542-1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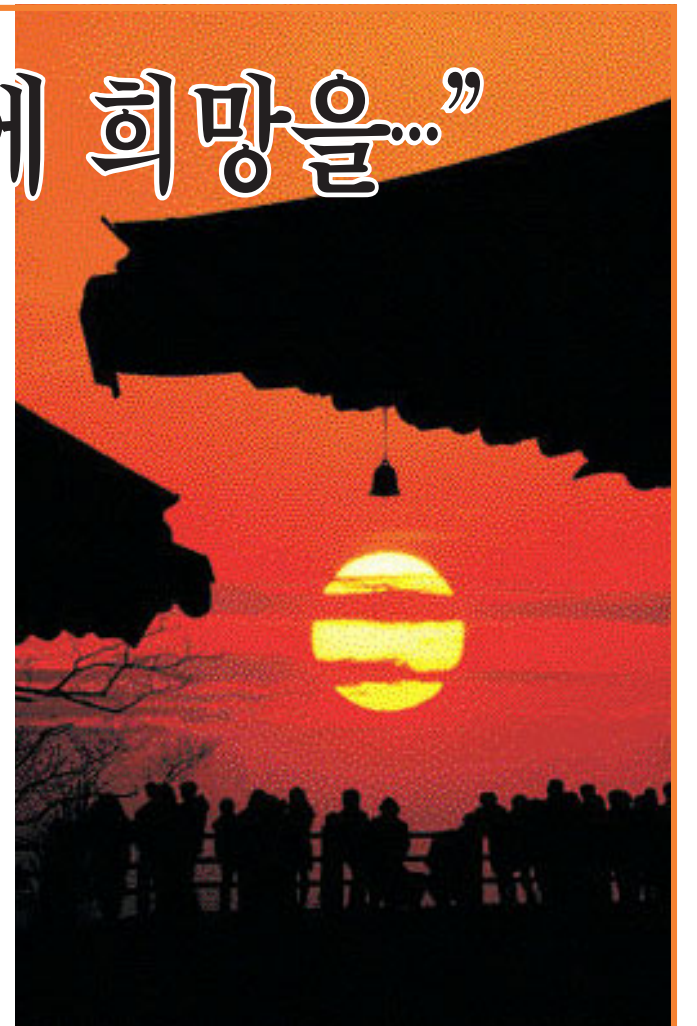
☞ 선상 해맞이

명의 건각들이 100km를 달려서 새해를 맞이하는 '울트라 마라톤'을 개최한다.

이외에도 고흥군과 진도군은 남월 해수욕장과 침찰산 정상에서 각각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한편 31일 일몰시각은 가거도 오후 5시 40분, 내년 1월1일 일출시각은 여수 오전 7시 36분, 목포 오전 7시 42분이다.

/송기동기자 song@



못지킬 약속에 날아간 기업유치

담양 설립예정 5천억대 하이테크 공장 187억 땅값중 127억원 지원 이행 못해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서 추진되던 5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조성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티엠테크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내에 건립 예정인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 디스플레이 공장 부지로 다른 지역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최근 군에 통보했다.

담양군과 티엠테크는 공장 부지 10만 평의 가격을 놓고 마찰을 빚은 끝에 사

업 추진을 중단했다.

담양군은 토지 매입비 187억원 가운데 127억원을 업체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티엠테크사는 "6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27억원은 국·도·군비로 지원키로 한 조건을 이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장 주변 오페수 처리장, 진입로 건설 등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득했으나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5천억원을 투자해 2008년 말까지 휴대전화, 게임기, 소형 TV, 데스크톱 모니터 등 중·소형 MEMS 디스플레이 생산체제를 갖추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지난 3월 티엠테크와 교환했다.

그러나 티엠테크는 29억여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기술력, 외자유치 등을 통해 5천억원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양해각서의 타당성도 논란을 낳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회사로 판단됐다"며 "MEMS 디스플레이 공장 건립은 무산됐지만 입주 희망업체들이 많아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양=채재희기자 jhwaha@

폐교 삼기중에 복분자 공장 유치

곡성군, 연수당과 투자유치 협약 체결

곡성군이 복분자주 업체와 복분자주 가공공장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곡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조형래 군수와 최홍민 곡성 ㈜토종복분자 대표, 임익재 광주 ㈜연수당 대표가 삼기면 구삼기중학교 폐교부지에 복분자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연수당 자회사인 토종복분자는 군이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삼기중 폐교부지에 가공공장을 설립, 곡성군에서 생산된 복분자 원료를 복분자주를 제조하게 된다.

곡성군에서는 현재 80여 농가가 19.4ha에서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진도 '암 휴먼센터' 설립 추진

郡-한국칼켄 투자의향서

진도군이 국내 최초로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선진화된 암 치료와 요양을 위한 '암 휴먼센터' 설립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칼켄(주)과 미국 솔리드 골드사(社)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먼센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휴먼센터 설립에 관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칼켄은 임상실험으로 검증된

국내외 각종 치료 보조제를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로 1천실 규모의 암 휴먼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회사는 타당성 등을 조사한 뒤 군과 재협의를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칼켄의 암 환자 치료방법은 기존 병원 치료방식과는 달리 대체 의학적인 방법과 오일요법을 갖고 휴먼센터 설립에 관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순창 장류체험관 새 관광명소 부상

관광·숙박 연계 방문객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

최근 문을 연 순창장류체험관이 유료 체험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장류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청 공무원과 기업체 대표 등 20여명은 최근 장류체험관 숙박시설에서 1박한 뒤 장류체험관에서 고추장담그기 등 유료 체험을 실시했다.

태백시청 장호영 지역개발과장은 "처음 고추장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며 "장류체험관은 체험과 숙박이 윈윈으로 가능하

고 주변 관광코스과 연계돼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매결연지인 경남 창원군 공무원과 대학생, 식품제조업체 종사원 등 60여명도 순창장류체험관을 방문하는 등 기관·단체별 유료체험이 잇따르고 있다.

장류체험관은 총사업비 18억여원이 투입돼 순창읍 고추장민속마을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390여평 규모로 지난 달 건립됐다. /순창=이홍식기자 hslse@

최고급 디지털로온방식 최신형 태양히트펌프

高유가 시대 걱정!! 끝

장류체험관

실용성 전기 1달 10시간 사용기준
 평균 전기요금 38,940 원
 무료 강박한 난방을 제공합니다.

021-732-0182

무등산업

신기하리의 명품 풀러이온히터

최고급 디지털로온방식 최신형 태양히트펌프

최고급 디지털로온방식 최신형 태양히트펌프

무등산업

021-732-0182